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김윤수 | 전남대학교 총장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에서 연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심화되고 있다. 한 교수의 연구실적은 그의 연구력만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계량화된 연구실적은 채용과 승진, 성과급과 봉급, 심지어 정년 후 연금에 이르기까지 개별 교수들의 교환가치를 결정하고 있다. 연구비 없는 교수는 장비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고, 그 때문에 새로운 연구비를 수주할 수 없는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힘든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연구가 대학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연구력 증진이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가치 폄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은 생명의 원칙이고 인격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역량은 경쟁력 있는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들이 그동안 팽배해진 연구중심, 혹은 '연구 따로, 교육 따로'의 대학 문화를 교육역량 강화를 출발점으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는 까닭이다.

1990년대 초반 교양학부를 폐지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학들은 학과의 벽이 사라진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함께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나 캠퍼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절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를 갖는 지도교수 중심의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일본의 대학과 교수들조차 학과와 학문의 벽을 무너뜨리는 변



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많은 대학들 역시 오래전에 복수전공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분위기를 안착시켜왔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교양학부를 폐지하면서 응용학문으로까지 교양교과목을 전면 확대하면서 동시에 해당학과에 교과목 운영을 맡겨왔다. 그 과정에서 교양과정이 학문의 기초보다는 상식의 확장에 주력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교양과목을 관리하게 된 학과와 학문 사이의 교류와 소통보다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복수전공 활성화나 자율전공학부 설립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학과 간의 높은 벽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여전히 독립적인 대상과 방법론을 주장하며 새로운 학문과 학과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문화와 특성화는 발전의 상징적 기호처럼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구별(distinction)이 비록 발전과 성장의 과정이긴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분리와 분할은 오히려 퇴행과 질병의 징표일 뿐이다. 교육역량의 핵심 평가지표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ability)도 서로 다른 학문 영역 사이를 가로지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은 문제풀이에 있지 않다. 문제를 찾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를 찾는 것이 주인이라면 노예는 주인이 제시한 문제를 풀이할 뿐이다. 대학교육이 문제 찾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노예의 양산에 있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갖는 인간의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참고서와 문제집에 얽매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지 못한 대학생들에

게 학문 횡단형 문제 찾기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양한 학문을 횡단하는 주체는 물론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다. 전공이 다른 교수들이 이러저러한 학문을 뒤섞은 교과목을 만들어 가르친다고 학문 횡단 교육이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의 벽을 넘어서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과 교류하며 학문의 교차로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힘들지만 학생의 몫이다.

오늘의 대학교육역량이 곧 미래의 연구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이 학문의 벽을 넘니들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대학을 지원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수들에게도 연구비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교육자의 의무이다'라는 정언명령만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ACE 사업에서 교육비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도덕적일망정 개혁적이진 않을 수 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수에게도 교육비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비 수주에 분주한 교수가 만나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가운데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 경쟁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경쟁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1971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83년 오스트리아 Bodenkultur Universitaet in Wie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임산공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교무부처장(89-91), 기획연구실장(94-96)과 대학원장(05-07)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전남대학교 18대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원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